

화합 말뿐... 서로 비방

조계종 사태

다. 정화회의는 규탄대회에 정화회의 의원을 비롯한 주요사찰 주지, 조계사 신도, 강원 학인 등이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1면>

재가연대 범불교대회 참여키로(2일)

●...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공동대표 박광서 임관속 임동주)는 2일 낮 12시 30분 서울 경지동 육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일 열리는 범불교대회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재가연대는 "합리적인 종단운영과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열린 종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범불교대회 취소 주장(3일)

●... 정화회의는 3일 불교바로세우기 범불교재가연대가 2일 성명을 밝힌데 대해 범불교대회의 취소를 주장했다. 이어 4일에는 재가단체에 팩시밀리로 보내 "또다시 폭력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범불교대회 불참을 요청했다.

월하스님 사과... 화합당부 담하(3일)

●... 조계종 중정 월하스님은 3일 통도사에서 청하스님(통도사부방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종단사태와 관련한 담하문을 발표했다. 월하스님은 담하문에서 "청정승가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고자 종단개혁에 뜻을 두었던 바 오히려 불미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불교의 위신이 추락된 결과를 가져 온 데 대하여 본인은 더없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분쟁 분위기를 하루속히 종식시키고 화합된 승단을 만들기 위하여 전 종도들이 합심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선거일정 논의(3일)

●...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덕운)는 3일 5명의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의 결의에 따라 24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추가로 후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종회에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7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직할 사암에 방화규탄대회 참석 당부(4일)

●... 정화회의는 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직할사암 주지회의를 열어 '조계사 대응전략 방화 규탄대회'(6일)에 참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21개 직할 사암 주지스님들은 결의문을 내고 범불교대회에의 중지를 촉구했다.

각 언론 폭력사태 비난

●... 30일과 12월 1, 2일 일반 언론은 이번 사태의 주요원인을 월하스님의 3선문제와 월하중정스님의 교시, 폭력적인 청사 정탈전 등으로 풀이하며 불교계 내에서 더이상의 혼란을 막을 도책을 하루속히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불법폭력행위를 묵과하고 있는 국민정부를 비난하고, 폭력에 대해 공권력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특취취재팀 (ytlm@buddhopia.com)

11월 30일 승려대회를 치르지 않고 화합으로 종단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지 속에 정화개혁회의측과 중앙종회측이 11월 28일 오후 3시부터 29일 새벽까지 회의를 열어 합의점이 도출되는 듯 했으나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27일에 이어 28일 오후 3시 타워호텔에서 계속된 회의는 화합을 위한 합의분위가 역력했다. 사실상 마지막 협상기회라는 인식이 팽배한 이 회의에는 중앙종회측에서 합동 청화 명진 현승스님과 승려대회대회장 탄성스님이, 정화회의측에서 정우 성문 종광스님이, 본사주지연합회측에서 법장 해광 중원 밀운스님이 참석했다. 정화회의측과 종회측은 오후 6시 30분 경까지 협상을 거듭한 결과 11개항에 이르는 합의문 작성에 성공



○28일 오후 6시 '합의문'이 작성된 후 종회측과 정화회의, 본사주지 대표들이 밝게 웃으며 횡단을 나누고 있다.

'13개 합의문' 작성에서 결렬까지

마라톤회의의 극적합의 그러나... 백지화 종정, 합의안 재가 거부

했다. 이 합의안에 대해 종회와 정화회의측은 일단 합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진영에 돌아가 의견을 수렴, 29일 오전 8시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사실을 공식화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본사주지연합회도 이같은 합의에 적극 지지했다. 그러나 이날 밤 9시쯤 정화회의측이 다른 안을 내놓으며 회의는 다시 진행됐다. 정화회의측은 합의안의 원칙은 존중하되, 탄성스님 위원장 불가 △수습대책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자 △수습대책위에 종단의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을 부여하지는 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종회와 정화회의는 이 수정안에 대해 토론을 거듭해 탄성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되 의견결론은 부여하지 않는다

△수습대책위원회는 각 진영 9명씩으로 한다 △수습대책위의 권한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결의문 종단입법기구에서 의결한다 △합의문은 종회와 원로의원, 중정스님을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화회의의 입장. 이를 두고 논의가 계속되다가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가지고 통도사로 내려가 중정 월하스님의 재가를 받자"는데 합의하고 새벽 1시 30분 통도사로 내려갔다. (종회측 법담 영담 현승스님,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합의문 내용

1. 중정제하의 교시를 엄격히 이행하며, 원로의원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종단문제를 수습한다.
2. 종단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되, 원로의원 탄성스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중앙종회의원 9인, 정화개혁회의 의원 9인, 본사주지스님 9인으로 하여 총 28인으로 한다.
3. 정화개혁회의는 총무원 청사를 11월 29일 정오까지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한 임시집행부에 인계한다.
4. 이번 사태로 인하여 민형사상 제기된 고소고발 건을 즉시 취하하며 중

5. 수습대책위원회 주관하에 금년 연말까지 총무원장 선거를 치른다.
6. 11월 30일로 예정된 전국승려대회 취소를 취소한다.
7. 현재의 총무원장 권한대행 집행부의 스님들은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한 임시집행부에 임무를 인계하고 일일직 중무원은 총무원 청사에 복귀한다.
8.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한 임시집행부는 새 총무원장을 선출하여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일체의 인사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9. 수습대책위원회의 결의내용을 모든 종단기관은 존중하여 처리한다.

정화회의측 월하 정우 성문스님, 본사주지연합회측 밀운스님 등). 29일 아침 6시 통도사에 도착한 스님들은 중정 월하스님에게 회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월하스님은 "이같은 합의는 원로회의를 통해 의결해 나에게 재가를 받아야 종현종법상 하자가 없는 것"이라며 합의안의 인가를 거부했다. 월하스님은 "승려대회를 하게 되면 중정스님도 불신임 받고 월하스님도 중정계승을 받게된다"는 탄성스님의 말에 대해 "당신들이 힘 있으면 나를 징계하라.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합대로 해라. 힘있는 자가 이기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참가자들의 전언이다.

월하스님은 또 "이렇게 합의하면 교시를 이행하기 위해 승려대회를 열고 출방한 정화개혁회의가 해 온 일은 다 무엇이나, 본질치가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더이상의 대화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아침 식사후 탄성스님은 통도사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무산했으므로 30일 오후 2시 예정된 승려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 탄성스님은 상경직후인 오후 2시 중앙종회 임시사무실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30일 승려대회 개최 의사를 거듭 밝혔다.

임연태 기자 (ytlm@buddhopia.com)

정화회의 '합의문' 입장표명(29일)

●... 정화회의는 승려대회 하루 전인 11월 29일 '28일 13개항 합의문'을 전격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화회의는 △합의문을 지지하며 △최대한 최종 합의의 도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화회의는 이날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62년 이후 종단에서 정치적 이유로 징계한 스님들의 사면을 중정스님에게 건의키로 했다.

탄성스님 승려대회 강행발표(29일)

●... 탄성스님은 29일 오전 통도사 마당에서 30일 승려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로 올라와 오후 2시에 중앙종회 임시사무실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승려대회 개최 의사를 거듭 밝혔다. 탄성스님은 "정화개혁회의측이 애초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종단의 비법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종현종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종도 대중들과 함께 전국승려대회를 강력하게 봉행하는 길밖에 없음을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탄성스님은 또 "정부와 공권력이 정화회의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반년"으로 규정, 반정부행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려대회후 청사 장악 공방전(30일)

●... 30일 승려대회 직후 조계사 진입과정에서부터 시작된 정화개혁회의측과 승려대회측의 마찰은 결국 돌과 유리병, 석유등 등이 난무하는 유혈사태로 번졌다. 승려대회측 스님들이 덕왕전과 해탈문에서 총무원 청사 진입을 시도할 때마다 청사위의 정화개혁회의 스님들은 돌과 화염병을 던져 격렬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스피커를 통한 방송공방까지 동원된 정화개혁회의측과 승려대회측의 대치상태는 12월 1일 새벽까지 계속됐으며, 덕왕전 벽이 뚫리고 대웅전에 불이 붙는 등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스님과 불자 3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관련기사 2면>

종회, 종단정상 비대위 구성 의결(1일)

●...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등)는 1일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마빌딩에서 제136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종단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종회의장단과 종회의원 5명, 본사주지 5명, 총무원 집행부 3명, 선원, 강원, 울진 등 25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임원선정 및 역할 등은 의장단에 일임했다. 중앙종회는 7일 오전 10시(장소미정) 제136회 임시중앙종회를 속개하기로 하고 휴회했다.

공권력 규탄... 책임자 해임요구(1일)

●... 종현종법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행위위원회 공동총무원장 지선스님과 공동집행위원장 도법스님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의 지휘선상에 있는 종로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 및 청와대

장무수석등의 해임과 사태의 초기부터 관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종필국무총리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12월 6일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범불교대회를 열고, 승려대회에 참여했던 16개 교구본사를 비롯 66개 문화재 사찰및 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의 산문을 폐쇄할 것이며 전국사찰 일주문 앞에 대정부 규탄 내용을 담은 현수막 및 대자보를 게시하고 각 교구본사를 순회하며 규탄행위를 가질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조계사 신도들 성전 파괴 규탄(1일)

●... 조계사 신도 30여명은 1일 오전 대웅전 앞에서 모임을 갖고 대응전략화 및 덕왕전 파괴 규탄대회를 가졌다. 대회를 마친 신도들과 스님들은 경례를 한 바퀴 돌며 현장을 둘러봤다. 덕왕전에 이르러선 처참하게 부서진 모습을 보고 모두 울먹이며 '관세음보살'을 염송했다. 이어 신도들은 총무원이 임시로 입주해 있는 조계사 건너편 천마빌딩 앞으로 가 승려대회방행위에 항의했다.

'13개항 수습안 아직 유효'(1일)

●... 정화개혁회의 상임위원장 월하스님은 12월 1일 오후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일 사태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월하스님은 "폭력대회를 사전에 저지하지 못해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28일 도출된 13개항의 합의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화회의는 30일 승려대회와 관련, "30일 개최된 승려대회의 모든 결정은 무효이며, 정화회의는 종정제하와 원로회의의 결의에 따라 유일하게 적법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실천승가회 공권력 규탄성명(2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의장 청화)는 2일 현 조계종 사태와 관련 정화개혁회의 및 대정부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김종필국무총리의 사퇴와 이강래 정무수석, 문화관광부 총무실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 등의 해임을 요구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3백여 회원사찰을 중심으로 대정부 규탄 현수막과 대자보를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불교대회·방화규탄대회(1·2일)

●... 승려대회 공동총무원장 지선스님과 공동집행위원장 도법스님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사부대중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종현종법 수호 및 공권력 규탄 범불교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4일 범불교대회 불행위원회는 대회를 비폭력 원칙을 견지해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정화회의는 6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조계사 대응전략 방화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정했

화합 말뿐... 서로 비방

大韓佛敎 觀音宗 第四代 宗正雲湖大天 大宗師께서 佛紀 2542年 12月 4日(음력 十月 一六日) 午前 1時 30分 論山觀音寺 宗正院에서 涅槃하시었기에 茲以訃告합니다.

佛紀 2542年 12月 4日

- 一. 永訣日時 : 佛紀 2542年 12月 8日(火) 午前 10時30分 (宗團葬)
 - 一. 永訣式場 : 충남 논산시 부창동 100 觀音寺
 - 一. 茶毘場 : 충남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 산40 보명사 蓮花台 오후 2시
- 법상좌 : 만수 성학 혜묵 성철 서호 성초 경법 경안 선발 보명 진수
· 손상좌 : 계현 인호 보성 명오 법련 도의

大韓佛敎 觀音宗 第四代 宗正 雲湖大天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 委員長 李 泓 坡

연락처 ; 總務院 02)763-3109 · 3345 / 觀音寺 0461)735-3144, 普明寺 0417)568-2323